“기류”섬유대학 개교하고 마스터 · 코스도 개설

일본에서는 그 동안 섬유 산업이 인근 후발 공업으로부터의 값싼 수입 섬유제품에 밀려 시설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자, 섬유산업을 뒷받침해주던 대학의 섬유공학과들이 대부분 폐과되어 현재는 후꾸이(福井)대학, 신슈(信州)대학, 교토고게이 (京都工藝), 도쿄노꼬(東京農工)의 4개 대학에만 섬유공학과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젊은 섬유기술자가 극히 부족하게 되어 일본 섬유산업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일본 중부(中部)지방의 군마현(群馬縣) 동부에 있는 “기류(桐生)”지역의 “지바(地場, 본고장)” 산업진흥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금년 9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기류섬유대학”을 개교(開校)하게 되었다. 그 동안 기류산지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의 하나는 군마현이나 산지 내에 섬유의 생산이나 판매에 관한 지식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기관이 없어 기류산지의 모든 섬유인들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산업진흥센터에서 이 지역의 섬유관련자를 대상으로 섬유대학을 개교하게 되어 숙원사업의 하나를 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학의 커리큘럼(curriculum 교육과정)은 공통 코스로서 섬유산업, 섬유소재, 염색가공, 품질관리, 마케팅 방법, 시찰 연수 등으로 되어 있으며, 시찰연수에서는 각종 섬유관련 전시회 등의 견학이나 공장 시찰 등으로 되어 있으며, 선택 코스는 직물, 편성 레이스(lace), 텍스타일 · 디자인, 염색가공, 봉제의 5개 코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마스터 · 코스(master course : 석사과정)에서는 실제 섬유 시장에의 대응 능력과 클라이언트(client)에 대한 기획제안 프로그램으로서 고도의 정보화에 따른 환경변화 및 시장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강의는 9

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8회 예정으로 ①패션 · 마켓 동향분석 ②소비자 마켓 연구 ③스트리트(street) 마켓 연구 ④기획제안 스킬 · 업(skill · up)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